## 대포항, 국내 최초 어항/관광 복합 항만으로 개발

쌍용건설은 5월 28일 11시 조선호텔에서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삼성생명, LG화재 및 시공사인 쌍용건설, 동신건설, 대포항개발유한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440억원 규모의 PF(Project Financing)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대포항 개발 민자사업에 착수했다.

속초시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일대에 부두와 방파제 등 어항시설과 공원, 상가, 주차장 등 관광시설이 복합된 다기능 어항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2개월이며 총 사업비는 800억원 규모이다.

특히 일반적인 민자사업과는 달리 완공 후 속초시가 3년에 걸쳐 분양 및 운영한 수익으로 쌍용건설이 설립한 대포항개발유한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ABL(Asset Backed Loan) 방식의 선진 PF 기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쌍용건설은 운영수익과는 관계없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속초시는 초기 투자없이 지역개발과 운영권을 동시에 얻는 윈-윈이 가능하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해 부산 용호만 민간자본유치사업과 인천북항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올해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및 군장항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준비하는 등 민자 항만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진성-이반성 도로 현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쌍용건설이 시공중인 진성-이반성 도로현장(소장 · 김영곤 차장)이 7월 1일 열린 '제37회 산업안전보고대회'에서 산재예방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현장은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이수제, 안전관리 상벌제, 안전시설물 책임제 실시 등 안전최우선의 현장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는 등 안전문화발전에 기여해왔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이반성면 발산리 일대 도로확장 및 포장(L=13km, B=18.5m)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현장은 1996년 4월 착공했으며 200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 한경주거문화대상 수상

'신도림 플래티넘 시티'가 6월 29일 '2004년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오피스텔 부문상을 수상했다. 총 794실 규모의 '플래티넘 시티'는 유러피언 데크 설계와 11개의 단지 내 테마정원 및 각종 편의시설을 도입한 웰빙형 오피스텔로 지난 5월 분양 당시 초기 계약률 95%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한경주거문화대상은 '인간과 친환경'을 테마로 주거문화 창달에 기여한 국내 주택건설업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건설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응모업체의 실적, 전문가집단의 표본평가조사, 소비자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업체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7월 1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됐으며, 최재암 상무와 최세영 홍보팀장이 참석했다.

## 서울시민사랑상 수상

쌍용건설이 리모델링한 올림픽 제1체육관(현장소장 · 이윤기 차장)이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2004년 '서울시민사랑상 리모델링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올림픽 제1체육관은 지난 86년 쌍용건설이 세계 최초로 케이블 서스펜션 돔구조(Cable Suspension Dome Structure)로 시공한 바 있으며, 지붕 구성재 등이 경과년수(15년)에 도달함에 따라 2002년 9월 보수 공사를 착공 2003년 9월에 완공했다.

한편 '서울사랑시민상'은 쌍용건설이 그 동안 6회에 걸친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는 '서울시 건축상'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번 수상으로 모두 7회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리모델링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우수한 리모델링 시공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시상식은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으며, 문보현 상무가 참석해 상을 받았다.

## 도곡동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쌍용건설이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

삼성물산과 재건축을 추진해오던 도곡동 동신아파트가 8월 7일 주민총회를 통해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리모델링조합(조합장 · 정용기)을 출범시켰으며, 이날 참석자의 91%인 330명의 찬성으로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7월 27일 마감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방식을 선택 투표 결과, 약 90%의 찬성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이 거론돼 왔으나, 실제로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78년에 건립돼 약 26년 된 동신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지하 주차장이 신설되며, 욕실수를 늘리는 등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리모델링된다. 특히 지상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고 녹지 공원을 갖춘 개방형 주택단지로 조성되는 등 공익에도 기여하게 된다.

## '디지털홈 개발 및 홈네트워크 기술동향' 기술 세미나 개최

쌍용건설 기술개발부는 6월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임미숙 박사를 초청해 '디지털홈 개발 및 홈네트워크 기술동향'을 주제로 사내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장식 건축본부장외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홈 개발 필요성, 디지털홈 수요변화와 추세 및 전망,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책동향, 관련 기술 구축동향 등에 대한 임 박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IT 산업과 디지털 홈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따른 관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최됐다.